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4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8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마음으로 보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시각장애인에게 전한 특별한 선행 / 손은영 차장(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내외홍보본부 브랜드, 스폰서십, 지속가능경영팀)

## 장애인계 뉴스

1. 2012 아시아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서울에서 열려
2. 한시련, 2012 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 백두산에서 개최
3. 런던의 열기, 장애인올림픽이 이어간다...오는 8월 29일 개막
4.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 개최...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논의
5. 국제보조공학기기의 발전을 한눈에...2012 국제보조공학 심포지엄
6.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임대주택 공급된다
7. 광복절조차 차별 받는 시각장애인

사람이야기: “꿈을 꾸려면 많이 꾸고 크게 꾸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각장애인 증권분석가 신순규 씨

독자마당: 달콤한 기대 / 곽희연(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제과교실 수강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8월 1일~8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2)

~~~~~

포커스

마음으로 보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시각장애인에게 전한 특별한 선행

손은영 차장(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내외홍보본부 브랜드, 스폰서십, 지속가능경영팀)

최근 K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는 출연자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한 사람은 눈을 가린 채 산을 올랐다. 힐링투어라는 주제의 백담사 템플스테이 체험 중 하나였던 이 미션은 눈이 가려진 사람과 나머지 사람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체험을 마친 후 한 출연자는 ‘눈이 가려진 채 산행을 해보니 인도해주는 동료에 대해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마움이 솟더라’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 ‘지역사회 발전이 곧 지속가능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환경, 보건, 교육, 아동의 4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은 세계적인 시력 보건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모금을 통한 기금을 개안수술뿐 아니라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2003년 이래로 벌써 전 세계 2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Here for good’이라는 기업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을 통해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 서비스는 물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관련 단체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 실명 구호 단체인 ‘비전 케어 서비스(Vision Care Service)’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안과 진료 서비스와 안과의료봉사단인 ‘아이캠프원정대’의 자원봉사 활동, 오디오북 및 점자책 제작,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 한빛 예술단 후원 등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의 흰지팡이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안과의료봉사단 ‘아이캠프원정대’

스탠다드차타드는 2011년 12월 대학생으로 구성된 안과 의료 봉사단의 출범식을 가지고, 비전 케어 서비스의 의료진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의료진을 도와 안과 진료 및 개안수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아이 캠프 원정대로 직접 활동한 대학생 김지윤 씨(아이캠프원정대1기)는 “안과 진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이 하루 이백 명이 넘었다”며 “눈 수술을 받고 나오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데 시각장애로 힘들게 살아온 삶의 곁이 느껴져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아이캠프 원정대 1기’는 작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됐으며, 올 연말께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아이 캠프 원정대 2기’를 모집해 예방 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대학생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오디오북 및 점자책 제작, ‘착한도서관 프로젝트’로 확대

지난 2010년 12월, 스탠다드차타드 임직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및 점자책 제작에 착수했다.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 기부에 동참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줄 20여 권의 세계 명작이 오디오북으로 완성됐다. 이날 녹음된 오디오북과 점자책은 시각장애특수학교와 도서관에 기증됐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촉발된 이 프로젝트는 이후 개인의 목소리를 기부하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서울의 주요 거점 다섯 곳에 설치된 ‘착한 목소리 기부존’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고, 이들 중 백 명은 전문 성우의 지도를 받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녹음하기도 했다.

• **함께 뛰면 할 수 있다, 2인1조 마라톤**

세계 시력의 날(10월 14일)을 맞아 스포츠를 통해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는 마라톤에 도전하기도 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한 ‘하이서울마라톤’에서는 대회에 참석한 임직원 260명 중 70여명이 시각장애인 70명과 함께 2인 1조로 짝을 이뤄 10km코스를 달리는 특별한 기쁨을 누렸다.

• **재능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빛나는 무대, 한빛예술단 후원**

스탠다드차타드는 재능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후원활동도 하고 있다.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정기 연주회 후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연주가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스폰서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 예술 분야에 시각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열고 있다. ‘터칭아트갤러리’를 개관해 손의 감각을 통해 예술품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주말마다 맹학교에 찾아가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모종심기, 타일벽화 그리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계 뉴스

1. 2012 아시아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서울에서 열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8월 22일 KBS 스포츠월드 볼링장에서 ‘2012 아시아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 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폐막식이 열리는 25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4회 세계시각장애인볼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둔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본 대회 대회장이며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자 최동익 의원은 “볼링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종목 중 하나로,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18미터 전방의 열 개의 핀을 향하여 공을 던진다. 목표물들을 맞춰 쓰러뜨리듯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꿈을 던져 목표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대회 개최소감을 밝혔다.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Dr. S. Radha Krishnan 아시아대륙 대표는 “더 많은 국가에서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볼링선수권대회가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 등을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승인한 공식 대회로 호주, 대만, 중국 등에서 등급분류위원이 내한하여 선수들의 등급분류 심사를 진행한다. 등급분류심사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는 강동 공안과병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2. 한시련, 2012 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 백두산에서 개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장애인 활동가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8회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를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3박 4일간 백두산 및 중국내 고구려 유적지 등에서 진행되며, 전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운영요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장외투쟁, 정치활동, 대정부활동 등으로 심신의 피로가 쌓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열림으로써 외국 관광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체험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단은 8월 22일 중국 심양에 도착해 복능, 서탑거리 등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두산, 장군총, 광개토태왕릉비 등을 탐방하고 25일에 귀국했다.

한시련 관계자는 “요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의 힐링(치유)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심신이 지쳐있는 장애인 활동가들이야말로 힐링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민족의 자긍심도 북돋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 런던의 열기, 장애인올림픽이 이어간다...오는 8월 29일 개막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이 '하나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열린다.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165개국 4천20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척수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로 나뉘어, 육상, 역도, 유도, 골볼 등 20개 종목에서 503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한국선수단은 육상, 양궁, 골볼, 유도, 보치아 등 13개 종목에 선수 88명, 임원 60명 등 총 148명이 출전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를 따내 종합 13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해 2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 입소해 폭염 속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결단식을 가졌으며, 24일 런던으로 출국했다.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4.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 개최...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논의

2012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가 지난 8월 13일부터 양일간 대전 유성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특히 행사 중간 중간 특별연주가 준비되어 음악이 어우러진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증권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순규 씨가 '꿈과 현실, 법과 사람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이어갔다. 하버드대 심리학, MIT 경영대학원을 이수한 신순규 씨는 JP모건을 거쳐 현재는 미국 유명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헤리언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증권분석가로 일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꿈을 꾸고 독립심과 끈기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기관(대학) 내 이료 및 시각장애 재활관련학과 설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태훈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대학 내에 이료 및 시각장애 재활관련 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려주며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회가 진행됐다.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임중혁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진창원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분과별 토의로 마무리됐다. '저시력, 시각장애유아, 보행, 점자, 교과, 직업재활' 등 총 6개의 분과로 나뉘어 분과장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의가 실시됐으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사를 함께 하는 이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둘째 날에는 '2012학년도 한글점자 인증제 운영계획(오창우 서울맹학교 교사)', '시각정도 별로 본 정상시력 이하의 일반학교 재학생들의 통합교육 요구 분석(박순희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시각장애인 테니스 활성화 방안(정진자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시각장애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재활사례(이동인 보이소아이 대표)'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시각장애교육·재활의 최신 동향과 실태를 기초로 시각장애 교육·재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 서비스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 관련 전문가, 시각장애학교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5. 국제보조공학기기의 발전을 한눈에...2012 국제보조공학 심포지엄

'2012국제보조공학심포지엄'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제보조공학 심포지엄 및 전시회, 분과회의 등의 본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연계행사 등이 함께 진행된다.

행사 첫날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북미 재활공학 & 보조공학 협회(RESNA) 회장인 제리 웨이즈만(Jerry Weisman)의 '융합, 사람과 보조공학'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연사들의 주제발표, 우리나라 패널들의 토의가 이어진다.

둘째 날부터는 국내 보조공학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분과회의가 열린다. 8월 31일에는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전달체계 구축(국립재활원)', '직업재활과 보조공학(경기도장애인종합

복지관)'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며, 9월 1일에는 '공개기술 "eyeCan"의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개선 DIVE(한국장애인개발원)', '자세유지분야 실무자 연수회(노들담복지관 테크니컬에이드센터)', '운전재활의 필요성과 작업치료사의 역할(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에 관한 분과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 함께 운영되는 '보조기구 무상 수리·세척 Zone', '장애인 스포츠, 여가 특별체험존' 등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심포지엄 추진단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리프트 차량을 수시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ymposium.atrac.or.kr>)와 전화(031-295-736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임대주택 공급된다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급)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주거약자가 자신의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개조비용을 용자받을 수 있게 된다. 용자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4년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년 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7. 광복절조차 차별 받는 시각장애인

지난 8월 15일 67회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으나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점자 자료를 준비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광복절의 기쁨을 시각장애인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한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고자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참배와 위령제, 경축행사,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어느 행사장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광복절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이 담긴 점자 자료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가적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7월 27일이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경축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국민으로서 함께 나누어야 할 국경일 행사에 시각장애인은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번 광복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맞은 국경일이였다. 앞으로 있을 개천절과 한글날 등의 행사에서는 보다 나아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 사람이야기

### “꿈을 꾸려면 많이 꾸고 크게 뛰라”

####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각장애인 증권분석가 신순규 씨

미국 월스트리트에는 증권분석가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있다. 미국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순규 씨(46세)가 그 주인공으로, 그는 세계최초의 시각장애인 재무분석사(CFA)이기도 하다.

신순규 씨는 지난 8월 13일 대전에서 열린 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에 강의를 맡아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숫자를 다루는 증권분석가라는 직업 때문일까, 차가운 인상 일거란 예상과 달리 푸근한 미소를 가진 그에게선 웬지 모를 따뜻함과 친근함이 느껴졌다.

서울맹학교 중학교과정 1학년 때 혼자 몸으로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졸업하고 증권분석가가 되기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실현시킨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시각장애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는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도 아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증권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서너 명뿐이다. 미국에서는 맹학교를 1년만 다니고 일반학교를 다녔다. 한국에는 서울맹학교 다닐 때의 동기들만 아는 편이다.”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은 언제이며,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다. 왼쪽 눈은 돌이 되기 전에 시력을 잃었다. 오른쪽 눈은 흐릿하지만 시력을 유지했었는데 7살 때쯤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다. 9~10살 때쯤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투자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크게 얘기하면 자산운용이다. 영어로는 investment management 또는 asset management인데, 증권분석가라고 보면 된다. 고객들이 자산을 맡기면 원하는 증권타입에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는 일을 맡고 있다. 현재는 채권부에 있다. 어떤 채권을 사고팔아야 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

-하버드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졸업했는데 전공은 무엇이었는가.

“학부는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미국에서는 의대가 대학원 과정이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의대 입학준비를 했었다. 1970년대 정신과 의사가 된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사를 하겠다고 하니 미국 의사협회에서 정책을 바꿨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진단을 할 수 있어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환자의 안색이라든지 시각적인 진단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의사가 될 수 없게 됐다. 의사의 꿈을 접고 MIT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경영학을 전공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몸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공부를 했는데 피아노를 치다보니 기회가 왔다. 과거에 연합세계선교회라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외국의 후원자를 매칭해주는 일을 하는 단체가 있었다. 그 일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도 전하고 더 많은 후원자를 찾기 위해 서울맹학교 학생 중에 남성 중창단을 선발해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반주자로 함께 갔다. 두달 동안 모금투어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필라델피아 오버브룩맹학교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곳 교장선생님께서 유학 제의를 하셨다. 전액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가게 됐다.”

-미국에서도 고용의 장벽은 높았을 것 같다. 투자은행 일을 하고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원에서 경영학 중에서도 조직학을 전공했다. 투자은행, 증권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종사자를 찾아 선구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쪽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 기가 막혔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럼 네가 직접 선구자가 돼서 연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투자은행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다. 면접기회를 잡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다 JP모건 인사과에서 두 달간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인턴십을 하면서도 계속 입사지원을 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 JP모건 신용분석팀에서 장애와 상관없이 인



터뷰를 해보려고 했고, 인터뷰를 통과해 그 팀에 입사하게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로서 일하고 있다. JP모건은 4년 정도 다녔고 이직한 후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4년 됐다.”

**-투자은행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일 자체가 힘든 것이지, 시각장애가 있어서 더 힘들거나 그렇지 않은 않았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어려움이 줄어들었다. 스크린리더같은 보조기기들이 발전을 하기도 했지만 증권분석이라는 일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 입사 초에는 자료들이 문서로만 되어있어 모두 스캔해야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이기에 어려운 점이라면 비장애인들은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동료가 9시간 일한다면 나는 9시간 30분을 일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머리가 좋으실 것 같다. IQ가 높은 편인가.**

“증권분석은 IQ와 상관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주식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오늘 10만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내일 5만원으로 떨어져도 5만원의 주식을 파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주위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5만원에 주식을 살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하락할 때 팔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10만원에 샀는데 자꾸 내려가면 주식 시장에서 나에게 “바보, 바보”라고 말하는 것같이 느껴진다. 그런 것을 견디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나의 분석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맞는 결정만 할 수는 없다. 투자는 증권시장과 개인의 싸움인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격이 중요하다.”

**-짓곳은 질문일 수 있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셨는지 궁금하다.**

“재미를 본적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제약이 많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식은 사고 팔수가 없다. 제약이 워낙 많아서 안 하는 게 낫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많은 꿈을 꾸는 것, 독립심, 끈기라고 말하고 싶다. 꿈을 꾸려면 많이 꾸고 크게 뛰라. 예를 들어 달리기를 마라톤을 목적으로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10~20킬로는 뛰지 않겠는가. 독립심도 정말 중요하다.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복지콜, 활동보조인 등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역효과도 있는 것 같다. 시각장애인들이 의존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 기업에서는 의존적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각장애로 인해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조사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못할 거라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조사를 해서 시각장애가 정말 장애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현재 특혜가 되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에 입학할 때나 회사에 들어갈 때 장애인이라고 특혜를 주거나 할당제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들이다.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증권분석 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만, 결국 부자들에게 돈을 더 벌여주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를 생각했었다.

우선은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일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증권분석가로 일하는 20년 동안 쓴 글이 많은데 그것들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다.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 전부터 내가 쓴 글을 조금씩 공유하고 있다.”

~~~~~

독자마당

달콤한 기대

곽희연(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제과교실 수강생)

사람들마다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먹는 즐거움이 으뜸이라는 조금은 유아틱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썄요, 중도에 시각이란 엄청난 기능을 상실해서일까요? 후천적이지만 시각을 잃은 후 미각과 후각이 좀 더 발달하게된 것 같아요.

연둣빛 설렘이 온 세상을 덮어가던 봄날, 인터넷을 통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제과교실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신청을 한 후 체계는 또 다른 행복이 시작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요. 경쟁이 치열해서 수업을 못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정안인이라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은 우리 같은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접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저에게는 마치 가뭄 속 단비 같았어요. 어쩌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샅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처음 3주는 부모교육을 통해 여러 강사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던 제과교실을 듣게 됐어요. 전문적인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됐는데

잘 갖추어진 시설과 자상한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친절한 복지관 선생님들까지. 재차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말로만 듣던 빵과 과자 만들기...아, 그건 정말 감동이었어요. 프로그램이 거듭되면서 흥분과 기대는 사그라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되고 있어요.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손으로 느껴지는 그 보드라운과 말랑거림, 그리고 달콤하기까지 한 예쁜 반죽들...선생님의 친절한 지도에 따라 철판위에 얹은 반죽들은 오븐 속에 들어가면서 환상적인 향기를 발산한다지요.

집으로 돌아가 펜스레 어깨를 으쓱거리며 학원에서 만들어온 간식거리를 식구들에게 내놓는 기쁨이라니!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뭐가 그리도 뿌듯한 건지. 정국

이번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마련한 제과교실 프로그램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전의 다른 기관에서는 느껴보지 못 했던 봉사자 어머니들의 따뜻한 친절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시간을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아닌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었던거예요.

이번에도 호기심이 많은 저 때문에 도우미로 함께 하셨던 저희 엄마도 다른 곳과는 다른 봉사자 어머니들의 모습에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나서서 고된 일정을 소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저 함께하자고 하는, 책속에만 들어있는 사회복지같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마음을 나눈 것 같은, 작지만 소중한 느낌을 더 중요시하는 저의 경우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함께 하는 동료 같은 분위기 그리고 작은 미소와 관심, 따사로움...정이 많은 한국인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장점들이지만 그런 장점을 적재적소에 봉사라는 이름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복지관의 봉사자 교육에 새삼 감사했어요.

봉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서툴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이번 제과교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저 조금 다른 서로의 생활방식을 인식개선이란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쌓여가는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초록빛 복지도 그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제과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달콤하게 반짝이는 행복을 선물해주신 노원복지관 직원 분들과 제과제빵학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 우리의 삶도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자 같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조심스레 가져보아요.

[참고] 현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 주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더불어 제과, 도예 등 자기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수업이 곧 시작할 예정이다.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8월 1일~8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8월 1일(수요일) 민주통합당 기독교신우회 예배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의원 간담회와 민주통합당 의원모임인 ‘민주동행’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 방문해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3일(금요일)에는 민주통합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후 KBS 소비자고발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같은 날 화면해설방송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를 가진 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진 간담회를 주재했다.

5일(일요일)에는 서울맹학교 15기 동문야유회에 참석했으며, 다음날인 6일(월요일)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 한시련 서울지부 관련 간담회 주재, 북한장애인 선교사들과의 만찬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7일(화요일)에는 한시련 이사회를 주재한 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의 매체에 앞서 말한 평창동계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8일(수요일)에는 한국성우협회 이사장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으며, 시각장애대학생들에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가족캠프에도 격려차 방문했다.

9일(목요일)에는 강릉교도소 시각장애인 수감자와 특별 면회를 했으며, 10일(금요일)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지역 간담회를 주재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대구광명학교 총동문 야유회에 참석했다.

13일(월요일)에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채종걸 전 한국DPI 회장과 오찬을 함께한 후,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과 면담을 나누었으며, 같은 날 한시련 대전지부 하계수련회와 광주세광학교 동문회에 참석했다.

14일(화요일)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청지역 간담회를 주재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2)

1) ‘양복을 맞추다/맞추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양복을 맞추다

-해설: 예전에는 ‘(양복을) 맞추다’와 ‘(보조틀) 맞추다’를 구별하여 썼지만, 현행 맞춤법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맞추다’로 통일해서 쓴다.

2) ‘조그마하다’와 ‘조그만하다’ 중 맞는 말은?

-답: 조그마하다

-해설: ‘호랑이만 하다’, ‘집채만 하다’에서 보듯이 ‘~만 하다’ 앞에는 명사가 오므로 ‘조그만하다’는 틀린 말이다. ‘조그’라는 명사는 없기 때문이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